

3. 홍콩 시장동향

■ 홍콩 생산동향

- 홍콩에서는 일본과 대만에서 수입한 팡이버섯이 인기를 끌고 있음
- 현재 홍콩의 소형 소매상에서 판매되는 팡이버섯들은 대부분 허베이 지방에서 생산된 팡이버섯을 가져와 선편 소재 가공공장에서 가공 · 포장해 판매되는 제품들로 일본, 대만 수입산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를 차지함
- 홍콩에서 판매중인 한국산 농산물 중 버섯으로는 느타리버섯, 팡이버섯, 송이버섯이 대표적임
- 한국산 버섯의 홍콩 시장점유율은 2008년 3.1%, 2009년 46.4%로 급등함
- 홍콩의 신선농산품의 90%이상이 수입품임.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율은 극히 적어 통계자료 없음.

■ 홍콩 수입동향

○ HS CODE: 070959

- Mushroom, Fresh Or Chilled, Nesoi

< 홍콩 버섯 수입 규모 >

단위: kg

No.	Partner Country	2010		2011		2012	
		USD	Quantity	USD	Quantity	USD	Quantity
	Total	18,107,205	12,926,224	15,268,488	11,386,997	14,523,389	10,617,620
1	Korea South	9,987,755	5,388,799	5,725,459	3,457,222	3,558,989	2,076,743
2	China	2,835,407	6,306,687	2,521,288	6,586,696	2,306,056	6,622,935
3	Malaysia	1,400,310	185,579	1,974,151	249,638	2,181,724	284,882
4	Taiwan	838,693	643,748	572,801	397,920	1,205,218	933,200
5	France	699,937	10,383	997,579	11,394	1,204,848	13,847
6	Japan	657,328	188,680	966,099	447,856	1,000,359	398,584
7	Italy	517,427	671	1,012,340	1,398	975,466	1,125
8	Netherlands	624,451	142,677	735,826	180,918	778,551	188,068
9	New Zealand	416,228	43,595	423,584	39,895	631,327	66,277
10	Australia	94,763	393	251,705	6,742	371,831	13,767

출처: Global Trade Atlas (2013.3.21)

- 홍콩에 수입된 버섯 제품 총액은 2012년 14,523,389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수입량은 10,617,620 kg으로 집계

- 한국에서 수입된 버섯 제품 수입액이 3,558,989 달러로 가장 높은 규모 액을 기록하였으며, 수입량은 2,076,743 kg임

- 그 뒤를 이어 중국, 말레이시아, 대만에서 제품을 수입

■ 홍콩시장 내 한국 버섯

○ 한국산 버섯은 그 동안 홍콩 식품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하고, 수입량이 많지 않아 인지도가 낮았음

- 그러나 대 한류의 영향 및 고품질 상대적 가격 경쟁력의 우위에 따라 버섯 제품 관련 한국산 제품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

- 일본산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산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음

- Park n shop, Jusco, Citysuper등 대형 마켓에서는 수입산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은 한국인 중심 소비에서 외국인 중심 소비로 옮겨가면서 제품마다 종류가 다양해짐

- 현재 홍콩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버섯의 대세는 중국산과 일본산으로 중국산은 약 70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일본산은 고가 수입 버섯 중 가장 품질이 좋고 지명도가 높음

-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저가의 중국산을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한국식품에 대한 홍콩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면 일본산 버섯이 장악하고 있는 고급 버섯시장을 한국이 점유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